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담은 별다른 특색이 없어 보이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15장과 오늘 역대하 27장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건 등이 없이 평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25세에 왕이 되어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으니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그다지 길지도 않은 왕이었습니다.

요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왕하 15:34-35)입니다.

지금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 역대하 본문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역대하 본문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오늘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담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평범해 보이는 요담의 일생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 뿐 아니라 그 아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담은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의 말씀이나 역대하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에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요담 이 전에 있었던 3명의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담 이전에 있었던 왕들인 요아스, 아마샤, 윳시야는 모두 공통적으로 그들의 부친을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딩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에 대한 기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개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는 등 신앙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지금 말씀 드린 왕들인 요아스, 아마샤, 윳시야가 다스렸는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은 처음 시작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하였지마는 나중에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벌을 받았던 왕들입니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했던 일들과 범죄한 일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 왕은 앞의 세 왕들과는 달리 확연하게 드러나는 악을 범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전의 윗 문을 건축하였고 오벨 성읍을 많이 증축하였으며 또한 암몬 왕과 싸워서 이김으로 그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27:6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함으로 요담이 바른 길을 걸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담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눈에 띄지 않는 중대한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2절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입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웃시야 왕입니다. 웃시야 왕도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지만 웃시야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웃시야는 이마에 나병을 얻게 되었고 그의 나머지 임기는 그의 아들인 요담이 대신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웃시야가 죽은 후에 요담이 정식으로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향단에 분향하다가 나병이 든 것을 보고 자신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병을 얻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써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고 백성들도 왕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성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와있지 않은 일을 너무 비약적이고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 드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요담이 크게 범죄한 사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 백성들도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였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 해줄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1절에 보면 "웃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요담이 왕이 된 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며 선지자로 보내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인 백성들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6:9-10).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된 말씀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에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웃시야가 죽던 해, 요담이 왕이 된 그 해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은 여전히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요담을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스에게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요담 이전의 세 왕들과는 달리 요담 이 후의 첫 번째 왕인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요담이 자신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하스에게도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조금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는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 말씀 드린 것처럼 요담에게 확연히 드러나는 악한 일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나 아니면 그기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요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주님을 만난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잘 깨달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미치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